

景觀的 側面에서 照明한 主要寺刹 內 庵子의 創建 年代, 建物の 形態, 主佛 및 庵子 名稱의 特性

裴貞寬, 沈載成
배재대학교 생명환경디자인학부

A Study on Foundation Year, Building Form, Main Buddha and the name of Hermitages of Principal Buddhism Temples

Jeung-kwan Bae, Jae-sung Shim
Division of Life Enviromental Design, PaiCha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under the theory of hermitage ever built from Buddhist belief. Directing to hermitages within temples of Korea Jogye Order, we focused on the layout correspondence relationship among them. and 161 hermitages were the first object of the investigation.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 research purpose, the general epitome and spatial specification through various literature studies, on-the-spot survey and personal communications with a lot of priests were made. As one of the basic surveys, the foundation year were thoroughly investigated, followed by the form of building, main buddha and hermitage name. The results obtained were summarized as follows :

Forty five hermitages which are equivalent to twenty eight percent of total hermitages within the parish-level temples of Korea Jogye Order, were built in Shilla Dynasty and twenty hermitages that are 12.4 percent of the total were constructed in Koryo Dynasty and thirty seven percent of the total were founded during both of dynasties. This fact makes us to consider that many of hermitages in

those days were constructed with the simultaneity of principal temple foundation which means hermitage had responded the spirit of the times.

Every hermitage has its main Buddha and this thing happened that each hermitage enshrines its main Buddha according to the thought which was developed with the Buddhism expansion and sutra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intention. Basically a capital temple has differed in its central sanctum in accordance with resourceful sutra, and, at the same time, twenty seven in avatamsk Sect enshrine for Sakyamuni as their sanction and eight for the Merciful Goddess and 42.7 percent for Chajang's hermitages.

The name of hermitage not only represents its symbol but comprises the characteristic meaning of ascetic practice. 31.7 percent of the hermitages studies was found to have the names of relating to 'ascetic practice' or 'thought' followed by the 'nature' or 'environment' to 21.7 percent.

Key words : Korea Jogye Order, Hermitage, avatamsk, Sakyamuni, Sutra. Ascetic practice, Thought

I. 서 론

2000여년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우리나라 불교의 종교성은 우리 육체의 일부가 되어 정체성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곧 사찰이 하나의 신앙적 목적 대상물로서 이해되기 이전, 민족의 전통을 계승하는 문화요소로 볼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사찰이 전통조경의 연구대상이 되고, 또 경관 구성적 차원에서 사찰이 지니고 있는 문화감각을 예찰해 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사찰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경내 사찰의 건축학적 측면에서의 연구 분석이나 배치형식 등,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조영방식을 통해 관념적이고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를 발굴하고자하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조형뿐 만 아니라, 지형적 선택에 따른 사찰조영형식에 대한 가측적(可測的) 분석방식을 도입하여 사찰 내면의 세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전통사찰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해명을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사찰 내에 속하는 부속암자는 장소적 가치판단이 거의 유념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더욱

이 삼국시대부터 창건된 사찰들이 대체로 평지에서 산중으로 이동되면서 자연관 중심적인 조영으로부터 격리될 수 없었다. 따라서 사찰 자체가 정형적이며 지형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그 부속되는 암자의 조영 또한 이러한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 속에서 암자는 늘 연구의 대상에서 소홀해 왔다.

지금까지 큰절을 위시하여 주택이나 서원, 정자 및 마을의 안과 밖의 공간을 중심으로 한 입지적 분석은 많이 있었지만,^{1,2,3,4,5,6,7)} 암자가 갖는 수행처로서의 역사성이나 기능에 대해 체계적으로 구명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암자 창건의 역사적 가치와 건물형태가 갖는 시각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 제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장소차원의 접근에 따라 어떻게 암자들이 수용되는지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암자가 지니고 있는 종교적 잠재력을 경관적 측면에서 구명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범위 및 방법

1. 조사 대상지역 범위

연구대상지에 대한 조사 범위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구본사내 부속암자로 하되 경내에 다수의 암자를 보유하고 있는 19개의 큰절을 대상사찰로 하였다. 각 지역별 조사연구대상 교구본사급 큰절은 다음과 같다.

- 강원지역 : 월정사, 신흥사
- 충북지역 : 법주사
- 충남지역 : 마곡사, 수덕사, 갑사
- 전북지역 : 금산사, 선운사
- 전남지역 : 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대흥사
- 대구·경북지역 : 동화사, 직지사, 은해사, 해인사
- 부산·경남지역 : 범어사, 통도사, 쌍계사

2. 조사내용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관련문헌을 자료를 수집하고 대상사찰을 직접 방문하여 암자의 창건

연대와 당우명칭을 세밀하게 조사하였다. 당우형태는 법당을 중심으로 각 부속건물들이 배열되어있는 상태를 조사하였으며, 주법당내에 봉안되어있는 부처를 주불로 하였다. 또한 삼존불이 봉안되어있을 때에는 그 가운데의 부처를 주불로 보았다.

조사대상 암자들이 속해 있는 사찰은 법상종과 관련된 사찰, 화엄십찰에 속하는 사찰, 선종·교종(선교종)과 관련되는 사찰, 선종계와 관련되는 사찰 및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① 법상종과 관계되는 사찰 : 동화사, 금산사 및 법주사
- ② 화엄십찰에 속하는 사찰 : 화엄사, 해인사, 감사, 범어사, 송광사
- ③ 선종과 관계되는 사찰 : 직지사, 수덕사, 선운사, 백양사, 쌍계사
- ④ 선교양종과 관련되는 사찰 : 대흥사, 은해사
- ⑤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 : 마곡사, 통도사, 월정사, 신흥사

III. 결과 및 고찰

1. 창건연대로 본 암자의 역사성

창건시대별로 본 암자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조사결과 나타난 암자의 창건시대를 살펴볼 때 연대미상으로 남아있는 46개소를 제외하면 신라시대에 창건된 암자가 45개소로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유지기간이 고구려나 백제보다 길었던 데서 연유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더욱이 신라가 강력한 승불정책을 전개했던 결과가 많은 암자를 탄생하게 한 동기로 여겨진다.

한편 고려조에 들어와서 겨우 20개 암자가 조영되어 현저한 증가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총 조영 암자수는 22개소로 고려시대보다 오히려 더 많은 암자가 조영되었다. 그러나 조선 전기에는 거의 조영된 암자가 없었으나 중기로 가면서 활발하게 조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 초기에 암자의 창건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승유억불정책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제시대에도 19개 큰절에서의 암자는 많지는 않았지만 6개 정도가 새롭게 조영되었다. 한편 1945년대 이후에 창건된 암자도 22개소로 전체의 12.5%를 차지하고 있어 현대사회로 진입하면서 암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1] 창건시대별 사찰 내 현존부속암자

사찰	시대별 ^㉞									계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전기	조선 중기	조선 후기	일제	근대	연대 미상	
법상계	-	11	1		5	-	-	1	1	19
화엄계	1	11	3	1	4	6	2	7	15	50
선교계	1	6	3	-	1	-	-	1	6	18
선종계	3	5	5	-	1	1	4	2	11	32
자장계	-	12	8	-	3	-	1	5	13	42
합계	5 (3.1)	45 (28.0)	20 (12.4)	1 (0.6)	14 (8.7)	7 (4.3)	7 (4.3)	16 (10.0)	46 (28.6)	161 (100)

()은 %를 나타냄

y : 백제 - 678년까지, 신라 - 936년까지, 고려 - 937~1390년
 조선전기 - 1391~1599년, 조선중기 - 1600~1749년, 조선후기 - 1750~1909년
 일제시대 - 1910~1945년, 근대 - 1946~ 현재

이것은 물론 종교에 대한 자유가 허용되고 포교활동이 강하됨에 따른 성과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전개과정을 밟은 우리나라 암자는 오랜 역사와 함께 부침이 매우 심했고, 당우가 목조건물이었던 관계로 수많은 방화와 전화로 인한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중건 또는 증수를 통해 사찰중흥을 도모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암자를 창건당시의 종파별로 구분해서 보면 법상종계 암자가 조영된 것은 주로 신라시대(57.9%)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화엄계 사찰의 암자는 신라시대에 26.2%를 점유하였지만, 조선 중기 이후 꾸준하게 조영되었다. 특히 근래에 들어와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종계 사찰 내 부속암자는 백제나 신라시대 및 고려시대에 일부 조영되기도 했지만, 눈에 띄만큼 두드러진 것은 아니었다. 조선후기부터 재건의 기미를 보이기도 했지만 역시 많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연대미상의 암자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일제시대 이전에 상당히 조영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선교계 사찰부속암자도 신라시대에 33.3% 및 고려조에 16.6%의 조영실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선조 이후에는 지극히 미미하였다. 한편 자장율사와 관련이 깊은 사찰에서는 자장율사의 불력에 힘입어 절반에 가까운 47.7%가 신라와 고려조에 창건되었다. 근래에 들어와서도 화엄계 사찰과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창설이 이루어졌다. 다만 연대미상의 암자가 31% 가까이 되는 것으로 미루어 상당히 많은 암자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당우구조

각 사찰 부속암자에서 볼 수 있었던 당우의 공간구조는 대체로 一자형, =자형, ≡자형, ㄱ자형, ㄴ자형, ㄷ자형 및 □자형 등, 8종류이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우리나라 전통주택에 있어서도 규모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형태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암자 당우의 특징을 보면 주존불을 봉안하고 있는 법당 자체는 거의 ‘一’자형으로 다른 당우와 분리되어 있다. 또한 규모가 작은 암자는 법당을 요사채로 겸용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암자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법당은 법당대로 조영되고 좌우에 한 쪽 또는 양쪽으로 요사 및 다른 전각이나 선방을 조영하고 있다. 이는 사당중심의 서원에서 사당을 강당의 위쪽으로 배치⁸⁾하고 있는 공간구성원리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법당 뒤 좌우측 혹은 한쪽에 토속신앙의 상징 전각인 삼성각이나 독성각 또는 산신각들이 배치되어 있다.

각 당우 형태에 있어서도 비록 ‘ㄱ’자형이나 ‘ㄴ’자형 혹은 ‘□’자형의 당우라 하더라도 각 당우 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서로 분리되어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자형의 당우라 하면 각각 ‘一’ + ‘|’ + ‘|’ + ‘一’자형의 당우가 각각 분리된 채 조합되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당우이었던 조영구조는 시지각적(視知覺的)으로 대칭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조금씩 변화시켜 비대칭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전통주택에서도 그 예를 발견할 수 있다.⁹⁾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1개 암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당우의 형태는 전반적으로 ‘ㄷ’자형이 가장 많아 조사대상 암자의 27.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一’자형 형태의 당우가 22%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당우형태별 사찰 내 부속암자^{x)}

당우형태	법상계	화엄계	선교계	선종계	자장도량	합 계
一자형	3	5	5	10	8	31(22.0)
=자형	1	1	1	4	1	8(5.7)
≡자형	-	1	-	-	1	2(1.4)
ㄱ자형	3	5	2	3	7	20(14.2)
ㄴ자형	3	5	1	2	4	15(10.6)
ㄷ자형	5	9	5	12	8	39(27.7)
ㄹ자형	1	1	-	1	1	4(2.8)
□자형 ^{y)}	3	9	4	-	6	22(15.6)
합 계	19	36	18	32	36	282(100%)

()은 %임, x) ; 송광사와 신흥사의 모든 암자 및 봉도사의 백운암은 제외했음
y) : 이 구조에는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는 형태의 암자 당우들이 포함되어 있음

암자에 따라 이처럼 당우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데에는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에 적응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비정형적이고 천연그대로의 형식을 부각시켰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10,11)} 한편으로는 사세(寺勢)와도 무관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암자의 형태나 규모가 다르므로 해서 수도와 중생교화라는 암자 본연의 기능역할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 처음에 작은 암자에서 수도를 위해 기거하다가 규모가 커져 전각을 갖추게 되는데, 이 때 암자의 중요한 부분인 선(禪)을 기능하기 위한 선방이나 선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자형의 인법당에서는 암자의 절반은 법당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요사로 사용하고 있었고, ‘ㄱ’자형이나 ‘ㄱ’자형과 같이 법당과 요사채가 구분되어 있는 암자에서는 요사용만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선방을 겸하고 있는 암자도 있었다.

3. 주존불 개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암자에 봉안되어있는 주불은 석가모니불이 64개소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관세음보살로 37개소, 즉 23.1%의 암자에서 주불로 봉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존불별 사찰 내 부속암자^{*)}

주존불	법상계	화엄계	선교계	선종계	자장도량	합 계
석가모니	1	27	5	13	18	64(40.0)
아미타불	7	5	6	6	6	30(18.8)
약사여래	2	-	-	1	-	3(1.9)
관세음보살	6	8	4	8	11	37(23.1)
비로자나	2	6	-	1	3	12(7.5)
지장보살	-	2	-	1	2	5(3.1)
문수보살	1	1	-	2	-	4(2.5)
대세지보살	-	-	1	-	-	1(0.6)
나만존자	-	1	-	-	-	1(0.6)
마애불	-	-	1	-	-	1(0.6)
미륵불	-	-	-	-	2	2(1.3)
합 계	19	50	17	32	42	160(100)

* 본 암자에서 화엄사의 표충사는 제외되었음

아미타불을 봉안하고 있는 암자도 30개소에 이르러, 전체적으로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및 아미타불을 봉안하고 있는 암자가 82%에 이르고 있다. 석가모니불은 주로 화엄종계 사찰이나 선종계 사찰 및 기타 사찰에서 주로 봉안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사찰계열별로 살펴 볼 때, 법상종계 사찰에 속하는 암자에서는 19개 암자 중 13개 암자에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봉안하고 있었다. 반면 석가모니불은 오로지 한 암자에서만 봉안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엄계 사찰에서는 50개 암자 중 절반이 넘는 54%가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봉안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자장계 사찰이나 선종계 사찰에서도 동일하였다.

4. 명칭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행이나 사상을 강조하는 내용의 명칭을 붙이고 있는 암자가 51개소, 자연환경에서 명칭을 차용한 암자가 35개소, 부처나 보살의 명칭을 달고 있는 암자가 18개소로, 이 세 명칭이 전체의 63.4%에 이르고 있다.

[표 4] 암자 명칭별 사찰 내 부속암자

대 상	법상계	화엄계	선종계	선교계	자장도량	합 계
부처·보살	2	5	3	1	5	16(10.0)
불자, 불제자	-	-	-	1	3	4(2.5)
선사·인물	-	2	1	4	4	11(6.8)
수행·사상	7	17	4	10	13	51(31.7)
자연·환경	2	12	5	11	5	35(21.7)
물질·건물	5	9	3	1	5	23(14.3)
동 물	2	3	-	-	1	6(3.7)
식 물	1	2	2	4	6	15(9.3)
합 계	19	50	18	32	42	161(100)

()은 %임

수도나 사상 면에서는 길상, 무위, 견성, 염불, 기기, 수도 등의 명칭이 주로 사용되었고, 자연환경 가운데서는 서운, 삼성, 은선 및 백운과 같이 산중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풍경을 주제로 한 명칭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식물명으로는 주로 연꽃의 색채와 관련되는 백련, 홍련 및 청

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연꽃은 진흙탕에 있으면서 물들지 않는 속성이 있는 까닭에 불보살이 지향하는 안주의 자리다. 그래서 이 불보살이 앉는 자리를 연화좌(蓮華坐)라 하고 풍륜(風輪)과 수륜(水輪)의 여러 개 바퀴위에 불교가 지향하는 연화장세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¹²⁾

사찰계열별로 볼 때, 화엄계 사찰에서는 수행이나 사상 및 자연환경에서 연유된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선종계 역시 수행 및 사상 면과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암자 명을 붙이고 있다. 이에 비해 자장율사가 조영한 사찰의 암자에는 부처나 보살 이름을 붙인 경우가 단연 많았고, 이어 자연환경으로부터 연유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IV. 종합고찰

1. 시대의 흐름과 불교관의 정립

큰 산은 하늘과 가까우니 신령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나라 고유의 토속신앙은 산이라는 하나의 자연을 대상으로 한 강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종교적 관습이었다. 큰 산자락일수록 영험도가 높다. 이 때문에 한데 모여 수행하고 소원(所願)할 신령한 기도처를 찾는데 바로 산을 제외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토속신앙은 바로 불교와 습합하여 고유신앙의 한 자락을 차지하며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사찰은 많은 대중들이 모여 집회와 행사를 하는 곳이라 하여 가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부처를 중심으로 불법의 도를 선양하고 구현하는 곳이라 하여 도량이라고도 하며 깨끗한 집이라 하여 '비하라'(Vihara:精舍)라고도 한다. 불교가 처음 탄생한 인도에서 최초의 사찰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은 죽림정사다. 부처와 그 제자들이 이곳에 기거하며 수행과 설법으로 중생을 교화했던 장소였다. 사찰의 어원은 '상가람마'(Sangharama)이다. 불교 교단을 구성하는 비구(남자 승려)·비구니(여자 승려)·우바새(남자 신도)·우바이(여자 신도)의 사부대중이 모여 사는 것이라는 뜻이다. 중국인들은 이 상가람마를 '승가람마'(僧伽藍摩)로 표기하였고, 그것을 줄여서 '가람'(伽藍)이라고 불렀고 이를 '중원'(衆園)이라 번역하였다.

사찰을 종교학적 의미로 보자면 부처의 모습을 형상화한 불상이나 불화 등을 가운데 두고 불자들이 기도와 수행을 하는 곳을 말하며, 불자들이 찾아가 예배를 하고 법음을 듣는 곳이다. 불교의 발상지 인도에서도 부처가 태어나기 전에는 사찰이나 정사(精舍)와 같은 모임이나 예배의 장소는 없었다. 다만 부처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있었던 사문들은 정해진 곳에서 고행을 하지 않고, 나무 밑이나 동굴에서 떠돌이생활을 하면서 고행을 하였다. 부처가 보리수 아래서 선

을 득한 후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죽림을 희사 받아 그곳에 집을 지어 제자들과 함께 거처하였다. 그중에서도 기원정사나 죽림정사는 바로 태자의 동산을 수자타 장자가 황금으로 덮어 사들인 대표적인 사원이었다. 그런 정사가 부처가 입멸한 후 점차 발전하면서 일정한 양식을 갖추게 되었다.

인도에서 정사나 가람이라고 불리던 것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사(寺), 원(院), 찰(刹)이라고 불리게 되었다.¹³⁾ 한자의 사(寺)는 공공기관의 뜻이므로 (寺)라는 말이 사찰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관아에 붙여 쓰던 말이었다. 이는 후한명제(後漢明帝) 영평(永平) 10년(67), 인도의 가섭마(伽葉摩)와 축법란(竺法蘭)이라는 두 승려가 흰말에다 장경(經典)을 싣고 후한의 수도 낙양에 왔다가 외국귀빈의 숙소였던 홍려사에 머물도록 했는데, 이때 승려가 타고 온 흰말을 기념하여 홍려사를 백마사라고 고쳐 부르게 되면서부터 사찰의 효시가 되었다.

2. 우리나라의 불교형성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 전진(前秦)의 부견이 순도로 하여금 불상과 불경을 가지고 오게 한 것으로, 2년 뒤에는 다시 진(晉)으로부터 아도가 들어와 다음해 2월 조정에서는 성문사(또는 초문사)를 지어 순도를 있게 하고, 이불란사를 지어 아도를 머물게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가람이라고 할 수 있다.

백제는 384년(침류왕 1)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가 동진을 경유하여 입국, 남한산에 절을 짓고 포교를 시작하였다. 미륵사와 수덕사가 이때 건조되었고 교파도 삼론종, 계율종, 성실종 등, 세 종파가 성립되었다. 신라에서는 제19대 눌지왕 때에 목호자가 일선군의 모래의 집에 와 머물면서 몰래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은 528년(법흥왕 15) 이차돈의 순교 직후 비로소 가능하였다.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의 불교는 법주사, 통도사 등, 명찰을 창건하였고 귀중한 문화재도 다수 제작되었다. 이러한 불교를 고스란히 계승한 교려는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국가 전반에 사상적 지주가 되었고 문화의 꽃을 피웠다.

3. 창건연대로 본 암자 조영

우리나라의 불교는 1600년 역사의 긴 여정과 함께 선불교(禪佛敎)의 전통을 확립하여 오늘에 계승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를 중심으로 하는 제반 교학(敎學)과 정토(淨土), 미륵 신앙을 수용하는 통불교(通佛敎)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삼국시대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을 때, 중국을 통하여 유입된 불교는 경전을 통하여 그 뜻을 삼는 교학 불교(敎宗)와 선정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불교(禪宗)로 나뉘어져 있었다.

삼국시대에는 경전을 중심으로 한 불교가 유행하기도 했지만, 통일신라 이후 중국에서 유학하고 돌아 온 유학승에 의해 선의 수행이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도의국사가 개산한 가지산문을 중심으로 하는 선종도 성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신라는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가 더욱 우세하였으므로 선종이 설자리는 별로 없었다. 이에 선사들은 산으로 들어가 절을 세우고 산문(구산문)을 열었는데 이것은 고려 초기가 되어서야 완성을 이루었다.

이렇게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불교는 보조국사의 정혜결사 운동과 대각국사의 교관일치(教觀一致)의 선교통합운동, 고려 중기에서 말기로 이어지는 수선사·백련사 결사운동, 임제종의 유입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임제 법통을 이어 선교양종의 회통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배불정책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면서 선교양종(禪敎兩宗)의 팔도도총섭제도(八道都總攝制度)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임진왜란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 후 구한말까지 남북총섭시대(南北總攝時代) 선종과 교종이 양립하여 선종은 조계종, 천태종, 총남종으로, 교종은 화엄종, 자은종, 증신종, 시흥종으로 되었다. 1911년 일제에 의해 사찰령(寺刹令)이 제정되면서 31본산(本山)제도가 생겨났고 이때부터 선교양종의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13년에는 31본산 연합사무소 위원장제도가 실시되다가 1923년에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이사제도로 바뀌었으며, 1924년에 이르러서는 선교양종을 통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단초가 되었다. 비록 외형으로는 조계종으로 단일화되었다 하더라도 사찰은 원래의 법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조사된 이러한 선종계 사찰(직지사, 수덕사, 선운사, 백양사 및 쌍계사)내 부속되어있는 암자들은 모두 32개 암자에 이르고 있으며 조선초기와 중기를 제외하면 각 왕조마다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고 연대미상으로 남아있는 암자만도 11개에 이르고 있다. 선종과 교종을 합친 선교계 사찰, 대흥사 및 은혜사는 비록 두 개의 큰절로 구성되어있지만 부속암자 수는 18개 암자에 이른다. 선교계 사찰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가장 많이 암자를 조영하였고 그 후에는 두드러지게 조영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법상종은 당나라 초기 불교계에 등장하면서 우주 만물의 본체보다도 현상을 세밀히 설명하는 유식론을 중심으로 세운 종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경덕왕 때 진표율사가 오교의 하나로 처음 개창하였으나 이 계보를 가지고 있던 사찰이 조계종으로 병합되었다. 그러나 법통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일명 미륵계라고도 하는 이 계통의 사찰은 동화사, 금산사 및 법주사가 그 대표 격으로 이에 속하는 큰절들이다. 암자 수는 모두 19개소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신라시대에 조영된 것들이 현재까지 잘 보존되고 있다. 조선중기에 5개의 암자가 창건되기도 했지만 그 후에는 근대에 이르러 1개의 암자가 새롭게 조영되었을 뿐이다.

화엄종계 사찰은 화엄십찰에서 연유된다. 신라시대 때 의상이 당나라에 가서 지엄에게 《화엄경》을 배우고 돌아온 뒤 창건한 10개 사찰을 말하며, 의상의 화엄전교와 관련이 있으므로 ‘의상화엄전교십찰’이라고도 한다. 《삼국유사》 ‘의상전교조’에는 태백산의 부석사, 원주의 비마라사, 가야산의 해인사, 비슬산의 옥천사, 금정산의 범어사, 지리산의 화엄사 등, 6개 사찰로 기록되어 있고, 최치원의 <법장화상전>에는 대구 미리사, 지리산 화엄사, 태백산 부석사, 가야산 해인사와 보광사, 상왕산 보원사, 계룡산 갑사, 금정산 범어사, 무산 국신사, 부아산 청담사 등 10개 사찰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조계종 본사로서 현존하고 있는 큰절은 화엄사, 해인사, 갑사, 범어사, 송광사 등이 계통의 사찰로 분류하면서 암자수를 조사한 결과 50개소가 이 화엄계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송광사는 화엄십찰은 아니지만 조계종 수선사(修禪社)에 속하는 사찰이며, 수선사는 화엄학을 교학적 바탕으로 삼았다. 또한 송광사 가람구성에 있어서도 화엄학적 해석이 시도된 바 있다.^{14,15)} 연대미상의 암자를 제외하면 신라시대에 가장 많이 조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초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암자가 증가하였고 특히 근대에 들어와 짧은 기간 동안 9개의 암자를 새롭게 조영하였다.

자장계 사찰은 자장율사가 세웠거나 관련성이 깊은 자장도량의 사찰을 말하는 것으로 마곡사, 통도사, 월정사 및 신흥사가 여기에 속하는 큰절이다. 신라시대에 12개 암자가 조영되었고 고려시대에 조영된 암자만도 8개소로 다른 계통의 사찰보다 월등히 많았다. 조선대에만 해도 9개소가 새롭게 조영되었는데, 당시 불교가 미증유의 수난기를 맞이하여 도첩제를 실시하는 한편, 함부로 승려가 되는 것을 금하고 사전에도 과세를 하였으며 승려의 궁중출입과 도성 내 출입을 금할 정도로 억압정책을 폈을 뿐만 아니라 승과(僧科)가 폐지되고 승려들을 환속시키거나 여승들은 궁중의 관노로 삼는 등 그 수난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음에도 자장계 사찰에서는 조선조에 상당히 많은 부속암자를 창건할 수 있었다.

조선조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때 총 22개의 부속암자들이 새롭게 조영된 것으로 보아 조선조의 억압정책에도 불구하고 불교신앙 자체를 말살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아마도 이미 그 당시 불교는 국민적 신앙체로 정착되어있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고위관직이 남성일색으로 차지되어있던 당시 상황에서 일부 상류층 부인들은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돈독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웠으며, 더욱이 불교가 토착신앙과 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술적 관행이 그대로 불교의식으로 이어지면서 그 뿌리가 사라지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왕실에서는 왕실대로 억불정책을 전개하면서도 일부 사찰을 원찰로 삼으면서 재정지원까지 해줌에 따라 암자를 포함한 중창불사(重創佛事)가 매우성행하기도 했다.¹⁶⁾ 특히 임진왜

란 때의 승장들이 구국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바로 사찰의 부속암자가 다소 증가한 데에서도 불교에 대한 조선조 중기시대의 사조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조선 후기에 가서는 화재로 인해 전소된 건물을 태실수호사찰이며 동시에 어제수호안문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찰(예 : 은혜사)이었기 때문에 왕실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증창을 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다. 그리고 당시 명문가들 중에는 독실한 불교신자 혹은 관심이 많은 양반들(예 : 추사 김정희)¹⁷⁾이 필체를 남기기도 했다.

4. 당우구조, 주존불 및 명칭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은 구성 원리상 미적 통일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근본적인 원리로 자연과 인위(자연미와 인공미의 결합), 음과 양(양성적인 것과 음성적인 것의 공존), 주(主)와 종(從)(생태적 균형원리), 정(靜)과 동(動)(점, 선, 면의 동세효과), 내향과 외향(내적질서와 외적질서의 조합)과 같은 요소들을 들 수 있다.¹⁸⁾ 특히 산지에 조영할 수밖에 없었던 암자에 있어서 조영의 원리를 인간과 자연의 일원론적 관점에서 생명사상의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를 띠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중세기적 종교관을 보면 원효가 최초로 설악산에 만든 계조암은 정토사원으로서 삼존석과 암자내부의 동굴형 가람으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나 중간교량역할을 한 중국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암자의 형식으로 인식되고 있다.¹⁹⁾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 창건되었던 강원도 춘천의 문수원 선원도 우리나라 고유의 생태적인 자연경관을 그대로 활용하여 조영된 것을 엿볼 수 있다.

불타는 곧 여래(如來)라고도 하며, 진리를 체득한 사람(覺者)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원시불교에서는 교주인 석가만을 불타라 하지만, 불교교리의 발전과 함께 많은 종류의 불이 예배되고 또 조상(造像)되었다. 그러나 어느 시대이건 실제로 석가부처를 비롯하여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약사불, 미륵불 등이 신앙되고 즐겨 조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53불, 천불, 삼천불 등과 같은 다불(多佛)과 사방불(四方佛), 오방불(五方佛) 같은 방위불도 만들어졌다.

부처 이외에도 독립된 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경우도 있고, 불타의 협시로 표현되기도 한다. 보살이란 산스크리트 Bodhisattva를 한자로 보리살(菩提薩)이라 음역하는데, 보살이라 약칭한다. 불타가 되기 위해, 즉 보리(菩提)를 구하기 위하여 수행에 힘쓰는 자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보살에는 대세지보살 또는 지장보살과 함께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이며, 자비의 화신인 관음보살을 비롯하여, 문수, 보현, 세지, 지장, 일광, 월광, 미륵 등 수많은 형태의 보살이 조상되었는데, 이중 관음보살만 해도 33관음, 11면관음, 수월관음, 천수천안관음 등의 종류가 있다. 사례연구대상

암자를 분석한 결과 주불로 석가모니부처 관세음보살 및 아미타부처를 봉안하고 있는 암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가 전통적인 종교이기에 앞서 수천 년을 지속하는 동안 한 문화의 축으로 국민생활에 배태되었다. 그것은 지명으로부터 각종 생활풍습에 이르기까지 전파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사찰이 평지에서 산중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에서 산세가 좋고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인 곳에 사찰의 등지를 틀게 되면서 그 주변의 봉우리명은 대체로 부처 혹은 불교와 관련된 명칭을 부여하였다.

기독교와 같은 종교에서도 교회의 명칭으로 종교성이나 지역성을 강조하는 명칭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종교적 속성의 하나로 생각되고 있다. 불교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큰절의 명칭을 보면 대체로 불교의 상징성이나 수행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암자는 이와 달리 사상이나 수행과 관련된 것은 물론, 부처나 불제자, 동식물명 및 일반물질명 등 다방면으로부터 명칭을 차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례연구를 분석한 결과 수행이나 사상관련 및 자연환경과 관련 있는 명칭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자 전체적으로 석가모니부처와 아미타부처 및 관세음보살을 봉안하고 있는 암자가 전체적으로 82%에 이르고 있다. 계열별로 살펴 볼 때, 법상종계에 속하는 동화사나 법주사에서는 68.4%가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주존불로 봉안하고 있으며, 석가모니부처는 오로지 한 암자에서만 봉안하고 있다.

과거 불교교단은 크게 출가교단과 재가교단으로 나누어졌다. 출가교단이라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을 받들고 전심(專心)으로 불도의 수행에 힘쓰는 출가자(比丘)의 집단이며, 재가교단(在家教團)은 출가교단(出家教團)을 지지하고, 귀의하여 그 출가자의 가르침을 받드는 재속신자의 집단을 뜻했다. 대체로 기원 전후의 경부터 불교교단 가운데 출가비구의 교단과는 다른 재가의 불교신자의 단체가 인도 각지에서 성립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가지고 보리살타(bodhisattva) 즉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이 보살인 명칭은 원래 석존의 전생을 말하는 이야기(本生譚) 중에 석존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온 것이지만, 자기들도 석존과 같이 불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확신하여 사용하는 듯하다. 이러한 재가신자의 집단 가운데는 출가비구의 교단에 참가한 사람도 상당히 많아 이러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대승불교 운동이 흥기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새로운 불교운동은 부처의 유훈을 보수적인 출가교단의 사람들에게 맡겨 둘 수 없다고 하는 일부 진보적인 출가교단의 사람들과 재속신자가 부처의 참 정신의 현양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낸 것일 것이다.

이것은 부처의 참된 모양으로 아미타불을 이해하지만, 다른 어떠한 불교도의 석존 이해보다

도 진정신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신념과 함께 생각해 낼 것이다. 보수적인 출가교단의 고갈에 대해 재가교단의 사람들과 일부 진보적인 출가교단의 사람들에 의해 석존 참된 자세로서 묘사된 것이 아미타불인 부처님일 것이라고 말하여지고 있다. 더 나아가 불교의 한 종파라고 볼 수 있는 법상종^{20,21)}은 이 같은 유식론에 의하여 세운 종파로서 우주 만물의 본체보다도 현상을 세밀히 설명하려 하고 있으며, 인간의 심리나 인식의 문제를 심층적이며 집중적으로 파 내려간다. 유식이란 불교의 한 학파지만 특히 심리나 인식의 문제를 깊이 다루어 가면서 심층의식을 지각적으로 파악, 논리화한 것도 유식에서 근거한다.

유식불교의 정점에 붓다에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붓다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가르침이었다. 속으로 자기를 구하며 마음을 끝까지 구명하는 것 그것이 붓다의 근본 뜻이며, 또 유식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원류는 붓다에 있지만, 그것을 학문적으로 체계화 한 것은 인도의 미륵(彌勒), 무착(無着), 세친(世親)의 세 사람이었다. 특히 아미타불은 수준 높은 불교의 교설을 깨닫지 못하는 중생들에게 속히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이라는 육자진언(六字眞言) 또는 육자염불(六字念佛)이 바로 그것이다. 나무란 귀의한다는 뜻이며, 중생들이 믿고 의지하여 귀의할 대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미타불이라는 것이다. 누구든지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수명을 지닌 아미타불에 귀의한다는 의미를 지닌 이 염불을 정성껏 지송하면 깨달음을 얻고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찰, 특히 법상종계 사찰 내 암자들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봉안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교리적 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륵사상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제도권의 신앙보다는 소외받은 민중을 중심으로 전파되면서 어떤 정형화된 형식보다는 마을의 지킴이, 민중의 의지처로 확산된 것이 미륵신앙이다. 마을의 장승이나 노지의 돌부처를 그저 다 미륵이라 불렀던 것은 그 한 예가 된다. 그래서 삼국을 통일한 신라지역보다는 옛 백제지역, 제주도 등지에서 포교활동이 매우 활발했다.

과거의 사찰의식이나 관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사상이나 가풍에 따라 차이는 있었을 것으로 예견된다. 법상종이 유식사상과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성립되었고 미륵신앙의 조사라 할 수 있는 진표가 법상종의 승려이었기에 당시 융성하던 교세에 미륵사상이 한 축을 이루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장율사의 도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곡사나 통도사, 월정사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봉안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게 많은 것도 아미타불의 교리정신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불보사찰인 통도사를 위시하여 승보사찰인 송광사 및 법보사찰인 해인사의 부속암자들은 대부분 석가모니부처를 주불로 봉안하고 있으나, 마곡사와 범어사에 있는 암자들은 대다수의 암자들이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봉안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V. 결 론

암자 창건에 따른 조경적 가치와 건물형태가 갖는 시각적 의미판단을 가능케 하는 제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입지차원의 접근에 따라 암자들이 어떤 양상으로 수용되는지에 대해 현지답사 및 자료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암자가 지니고 있는 경관적 및 종교적 잠재력을 구명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지에 대한 조사 범위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구본사내 부속암자로 하되 경내에 다수의 암자를 보유하고 있는 19개의 큰절을 대상사찰로 선택하였다. 조사대상 암자가 속해있는 사찰은 ① 법상종과 관계되는 사찰로 동화사, 금산사 및 법주사, ② 화엄십찰에 속하는 사찰로서 화엄사, 해인사, 갑사, 범어사, 송광사, ③ 선종과 관계되는 사찰로서 직지사, 수덕사, 선운사, 백양사, 쌍계사, ④ 선교양종과 관련되는 사찰로서 대흥사, 은혜사, ⑤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로서 마곡사, 통도사, 월정사, 신흥사 등에 속해 있는 사찰 161개 암자를 조사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신라시대에 창건된 암자는 45개소로 전체 161개 암자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고려조에 들어와서 조영된 암자는 20개소에 불과하였다. 한편 조선조에 조영된 암자는 22개소로 고려조보다 오히려 더 증가하였다. 그러나 조선조 초기에는 거의 조영되지 못하다가 중기에 이르러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종파별로 보면 법상종계 암자가 조영된 것은 주로 신라시대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화엄계 사찰의 암자는 신라시대에 대부분 조영되었지만, 조선 중기 이후 꾸준히 조영되었다. 특히 근래에 들어와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종계 및 선교계 사찰 내 부속암자는 백제나 신라시대 및 고려시대에 대부분 조영되었으며 선종계 사찰에서는 일제시대 이후에도 조영암자숫자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한편 자장율사와 관련이 깊은 사찰에서는 47.7%가 신라와 고려조에 창건되었다. 근래에 들어와서도 화엄계 사찰과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창설이 이루어졌다.

2. 당우의 형태는 'ㄱ'자형이 가장 많아 조사대상 암자의 27.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ㅡ'자형 형태의 당우가 22%를 차지하고 있다. 암자에 따라 당우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에 적응하기 위해 비정형적이고 천연그대로의 형식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세(寺勢)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3. 조사대상 암자에 봉안되어있는 주불은 석가모니불이 64개소로 전체의 4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관세음보살로 37개소, 즉 23.1%의 암자에서 주불로 봉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미타불을 봉안하고 있는 암자도 30개소에 이르러, 전체적으로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및 아미타불을 봉안하고 있는 암자가 82%에 이르고 있다. 석가모니불은 주로 화엄종계 사찰이나 선종계 사찰 및 기타 사찰에서 주로 봉안되고 있었다. 사찰계열별로 살펴 볼 때, 법상종계 사찰에 속하는 암자에서는 19개 암자 중 13개 암자에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봉안하고 있었으며, 석가모니불은 한 암자에서만 봉안하고 있었다. 화엄계 사찰에서는 50개 암자 중 절반이 넘는 54%가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봉안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자장계 사찰이나 선종계 사찰에서도 동일하였다.

4. 암자의 명칭에 있어서 수행이나 사상을 강조하는 내용의 명칭을 붙이고 있는 암자가 51개소, 자연환경에서 명칭을 차용한 암자가 35개소, 부처나 보살의 명칭을 달고 있는 암자가 18개소로, 이 세 명칭이 전체의 63.4%이었다. 계열별로 볼 때, 화엄계 사찰에서는 수행이나 사상 면 및 자연환경에서 연유된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선종계 또한 수행 및 사상 면과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암자 명을 붙이고 있었다. 이에 비해 자장율사가 조영한 사찰의 암자에는 부처나 보살 이름을 붙인 경우가 많았고, 이어 자연환경으로부터 연유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1. 張龍得, 1976. 「明堂論」 신교출판사, 서울, p.35
2. 俞在賢, 1979. 民宅三要를 통하여 본 韓國傳統住宅의 配置計劃論. 울산공대 연구논문집, 제10권, 2호, pp.103-121
3. 민학기, 1991.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전통마을 공간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6
4. 朴是翊, 1992. 풍수지리와 현대건축, 기문당, 서울, p.125
5. 김수남, 1992. 「안동하회마을」, 대원사, 서울,
6. 장동순, 2000, 음양오행으로 본 생태건축, 생태건축 세미나, 제2권, pp.1-18
7. 황영웅, 2000, 생태건축에 관한 풍수적 기법, 생태건축 세미나, 제2권. pp.151-162
8. 李相潤, 1993. 南部地方 寺刹의 植生 및 景觀變遷에 關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29

9. 신상섭, 1998. 전통택 외부공간의 조영원리해석에 관한 연구 - 정음 김동수 가옥을 중심으로 - . 韓國庭苑學會誌, 16(1), 103-111
10. 金南喆,洪光杓, 1993. 三寶寺刹의 造景樹木 植栽現況에 관한 研究. 寺刹造景 研究, 제1권, pp.33-34
11. 裴貞寬, 2001. 寺刹景觀에 있어 造景植物을 中心으로 한 配置形式에 관한 研究. 培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4
12. 오홍석, 1999. 21세기 사찰건축의 방향과 위상, 釋林論叢 第33輯, 東國大學校 釋林會, pp.151-173
13. 이동영, 1999. 韓國佛寺建築의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1), 又松工業大學 論文集 第28輯, pp.361-385,
14. 金奉烈, 1988. 華嚴系 寺刹의 中心概念,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236
15. 金奉烈, 1998. 佛甲寺 伽藍構成과 建築構造, 寺刹造景研究, 第6輯, 87-106
16. www.seonunsa.org
17. www.eunhae-sa.org
18. 신상섭, 1998. 전통택 외부공간의 조영원리해석에 관한 연구 - 정음 김동수 가옥을 중심으로 - . 韓國庭苑學會誌, 16(1), 103-111
19. 閔庚珉, 1998. 韓民族의 陰陽과 三才思想이 남긴 不等邊三角의 空間文化. 韓國庭苑學會誌, 16(3), 95-107
20. 손봉희, 法相宗, web.chungbuk.ac.kr
21. 김남윤, 1995. 新羅 法相宗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p.143 - 145